

3. 일부일처

[수업을 위한 질문들]

1. 부처 형태는 1부 1처제가 가장 이상적인가? 진리인가?
2. 多夫 또는 多妻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夫妻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4. 夫妻 형태는 어떤 방식으로 시대적 특징을 드러내는가?

1. 一妻를 지향했던 사회

- 一妻 풍습

- 1부 1처 풍습의 존재를 살펴본다.

- 충렬왕대에 大府卿에 임명되었다. (중략) 드디어 상소하여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본래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습니니다. 지금 尊卑가 모두 1妻에 그치고 자식 없는 자도 감히 畜妾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온 자들은 娶함에 정한 한도가 없으니 인물이 모두 북으로 흘러갈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大소신료는 庶妻를 취하게 하되 品에 따라 내려 줄이고 庶人은 1처 1첩을 娶하게 하고 庶妻가 낳은 자식도 또한 嫡子처럼 베풀게 하십시오. 이같이 하면 원망은 없어지고 戶口는 증가할 것입니다.” 하니, 부녀들이 듣고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었다. 마침 燈夕에 朴楡가 왕의 행차를 따르니 한 노파가 있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庶妻를 畜하자고 청한 자가 저 늙은 거지다.’ 하니 듣는 자가 서로 전하여 그를 가리키니 거리에 붉은 손가락이 가득했다. 그 때 재상으로 부인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 논의가 가라앉고 행해지지 않았다. (高麗史 권106, 열전 19, 朴楡)
- 金璉은 충렬왕 때 大將軍이 되었다. 상장군 金文庇와 친했다. 일찍이 그 집의 정원에 가서 바둑을 두는데 金文庇의 처 박씨가 창틈으로 몰래 보며 그 아름다운 위용에 감탄하였다. 璉이 듣고 드디어 마음을 두었다. 얼마 후에 文庇가 죽었고 또 璉의 妻도 죽었다. 朴이 사람을 보내 청하기를 “꽃은 아들이 없으니 그대의 아들 하나를 얻어 기르고자 합니다.” 또 말하기를 ‘面陳할 일이 있으면 한번 오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璉이 드디어 가서 通했다. 監察과 重房이 서로 글을 올려 極論하였다. 왕이 先의 族이므로 용서하고자 했으나 부득이 海島에 유배하고 朴은 竹山에 歸(鄉)했다.

처음에 왕이 戶口가 날로 줄어든다 하여 土民으로 하여금 모두 庶妻를畜하게 했는데 庶妻는 良家의 딸이었다. 그 子孫은 仕路에 통하도록 허락하되 만약 信義를 돌보지 않고 舊를 버리고 新을 좇는 자는 곧 죄를 주게 하였다. 所司가 바야흐로 시행하기를 의논하는데 金瑄이 禮를 범하자 드디어 가라앉았다. (高麗史 권103, 열전 16, 金慶孫附 金瑄)

- 一妻와 고려의 法

- 1부 1처가 법률로 규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尙書 朴楡가 항상 말하기를 “동방은 木에 속하는데 木의 生數는 3이요 成數는 8이다. 홀수는 陽이고 짝수는 陰이다. 吾邦의 사람은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데 이치는 그런 것이다. 國家의 法에 비록 達官이라도 감히 二家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부녀 중에는 종종 머리가 희어도 醮禮를 하지 못하고 衣冠의 후손은 실처럼 끊어지지 않는지만 兵民과 戶口가 날로 줄어들게 됨은 이 때문이다. (櫟翁稗說, 前集 2)
- 상장군 趙叔昌과 시어사 薛愼을 蒙古에 보내 表문을 올리고 稱臣하였다. (중략) 그 書에 말하기를 “(중략) 또 이르기를 ‘국왕과 諸王, 公主, 郡主, 大官人의 童男 5백 箇, 童女 5백 箇를 모름지기 보내라’는 일은 前書에 기록한 바와 같이 我國의 法은 비록 위로 君이 된 자도 오직 1箇의 嫡室을 配得할 뿐이고 다시 媵妾이 없으므로 王族의 자손도 번성하지 못합니다. 또 나라가 협소하므로 臣僚의 列에 있는 자도 역시 많지 않고 그리고 娶한 바도 1처에 불과하므로 낳은 바도 혹은 있고 혹은 없으며 있어도 혹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모두 출발하여 上國에 보내면 누가 王위와 朝廷, 有司의 직책을 承襲하여 大國을 받들겠습니까 (高麗史 권23, 고종 19년 4월)